

商工資源部 정식 발족

에너지담당3次官補신설

3차관보 1室13局4官68課11담당관

에너지資源정책 1室4局23課서 다루

정부는 3월 4일 黃寅性국무총리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한 문화체육부와 상공·동력자원부를 통합한 商工資源部 職制制定令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자원에너지담당차관보를 신설하고 동자부의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등

의 중복조직을 폐지하며 정원을 69명 감축, 1,123명(통합전 상공 737명, 동자 455명)으로 조정하는등 조직을 확정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상공부의 현직제와 동력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을 에너지정책국으로 하고 광무국은 자원개발국으로 흡수한 상태로 통합, 자

원분야를 담당하는 제3차관보를 포함해 모두3명의 차관보와 1개室, 13개局, 4개官, 68개課, 11개담당관 및 9개 소속기관에 1,123명의 정원을 보유하게 되며 에너지자원정책은 1실4국23과에서 다루게 된다.(에너지경제신문)

한편 商工資源部는 英文表記를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로 결정했다.

太陽光 발전소가 1월28일 충남 보령군 오천면 호도에 준공됐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호도 태양광 발전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1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설한 것으로, 그동안 겨우 3~4시간씩 전기를 쓰던 호도의 63가구에 하루24시간 내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난87년 전남 여천군 화화도에 건설된 25KW급 설비가 처음이며 그 뒤를 이어 91년에는 제주 마라도에 30KW급 발전

호도太陽光 발전소 준공

100KW급 국내최대규모

소가 건설됐고, 이번 호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세번째로서 용량은 100KW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호도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937평의 부지위에 태양광을 모으는 1천768장의 집열판과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주는 변환기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장시간 저장

할 축전지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축전지 용량은 3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 흐린 날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충청남도와 한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91년 4월에 착공한 이 호도태양광발전소는 총10억여원이 들어갔다.

輕차량 LPG사용허가

燃費표시제 모든차량확대

정부는 에너지소비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 이용합리화기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85억원에서 2백1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승용차에대한 LPG(액화천연가스)사용허용과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월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93년 에너지수요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동자부는 수송부문의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위해 경승용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승승겸 화물차, 지프차등 모든 승승차류에 대해 연비표시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에너지절감을 위해서는 ▲ 에너지低소비형산업구조 촉진 ▲

에너지절약시설자금 5천억원지원 ▲ 1백개 핵심절약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간 4백만kwh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이 전년동기보다 10% 이상 전기를 아꼈을 경우, 전기료를 감면해주고 목욕탕 수영장등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을 제정,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규모 공공사업수행시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를 통한 절약형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전자식안정기등 에너지절약형기기의 보급도 대폭확대해 나가기로 했다.(韓經)

가스·石炭발전 경쟁력 회복돼 가고 있다

日·佛은 原電발전단가가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의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원자력에너지기구(ANE)가 지난10년동안의 주요선진국 발전소건설및 운영현황을 조사, 최근 발표한바에 따르면 프랑스와 日本 두나라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의 경우 原電 단가가 석탄및 가스발전단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英國의 경우 원전단가(91년기준)가 석탄발전보다 19%, 가스발전보다는 32%나 비쌌으며 美國의 경우 원전단가가 가스발전보다 10% 비싼것으로 조사됐다. 또 캐나다에서는 원전이 석탄발전보다 7%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는 원전단가가 석탄및 가스발전보다 각각 3%, 5%씩 싼것으로 조사됐으며 세계에서 원전단가가 가장 싼 프랑스도 원전이 석탄및 가스발전 단가에 비해 12% 싼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원전단가는 선진국들중 상대적으로 가장 비싼 편인 英國과 日本에 비해 3분의1정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는 △전체발전량의 80%이상을 원전에 의존할만큼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지어「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 △발전소건설과 운영의 표준화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한지역에 3, 4개의 발전소를 함께 지어 건설비용을 절감, 단가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동안 원자력발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原電의 경제성이 석탄및 가스발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않은 것은 그동안 석탄과 가스가격이 크게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석탄과 가스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 석탄및 가스발전소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東亞)

原子力및 에너지기구 10년간 조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대원장

林瑢圭박사 취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 제2대 원장에 부원장인 林瑢圭 박사가 취임하였다.

지난 2월 15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임용규원장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공헌한 전임 李相薰 원장에 대하여 각별한 사의를 표하였다.

林瑢圭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임을 재인식하고 안전기술원의 모든 활동이 공공의 이

익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당면한 정부의 안전규제 위탁업무의 충실한 수행은 물론 전문기술능력의 확충,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코자 하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林瑢圭 선임원장은 서울공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알곤 국제원자력학교와 미시간대학에서 보건물리학을 전공하였으며, 59년 원자력연구소 연구원 생활을 시작으로 국내 방사선 안전관리



<제2대 林瑢圭원장>

분야를 이끌어 왔다. 林원장은 현재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회장과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9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설 이후 부원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후레온(CFC)회수기 첫 개발

90%이상 되모아...4월부터 양산

오존층파괴의 대표적인 물질인 프레온가스(CFC) 회수기계가 국내최초로 개발됐다. 전자부품업체인 일진전자산업(대표 姜鎬載)은 16일 자동차 에어컨, 룸 에어컨, 냉장고등에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를 90% 이상 회수, 99.97%의 순액으로 재생할 수 있는 「프레온가스 냉매 회수재생기」를 개발, 4월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프레온가스냉매 회수 및 재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7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고급기술의 하나.

프레온가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미국-일본 등이 이 기술을 개발해 폐차장이나 자동차정비공장 등에서 프레온가스를 재생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미국 로빈에어사가 개발한 1백여 대가 보급돼 있다.

일진전자산업의 崔昌燮과장(35)과 黃義赫(28) - 徐載承씨(26) 등 3명의 연구팀이 개발한 냉매회수재생기는 에어컨의 저압측에 연결해 프레온가스를 회수하는 방식.

회수한 프레온가스는 그 자리에서 철분-기름때 등 잡물질을 제거한 뒤 곧바로 고압측에 연결해 에어컨에 주입하거나 그대로 저장할 수 있다.(조선일보)

선진국들 炭素稅 도입, 우리발등에도 불떨어진다

한국수출 총94억달러 타격

국내총생산 年0.4% 위축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목적으로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경우 오는 2005년까지 12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이 총 94억달러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0.4%씩 감소하는 요인을 가져와 총 12조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는데 우리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19일 무역협회가 내놓은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韓國경제에 미치는 영향(94년부터 2005년 기간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탄소세 도입은 세계 경기의 위축을 초래, 우리나라의 수출은 매년 연평균 7억9천만 달러(0.5%)씩 감소, 12년동안 총 94억8천만달러의 실질 수출감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무역협회, 철강협회, 자동차공업협회, 석유화학협회등 4단체가 미국의 경제예측기관인 DRI연구소에 10만달러의 용역을 취 작성된 것이다.

DRI는 또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 일본은 탄소 1t당 1백달러, 유럽공동체(EC)는 석유 1배럴당 10달러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 우리나라의 수입물가와 국내 소비자물가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볼때 각각 매년 2.5%와 0.7%씩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전자 통신장비 정밀기계 운송기계산업등과 같이 미국 일본 유럽에

서 생산된 부품이나 반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에 큰 타격을 줘 국내 산업생산이 탄소세를 도입하지않은 경우의 국내산업생산 예상치보다 12년간 연평균 0.5%씩 감소하고 고용은 총 9만2천명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수입단가 상승등의 이유로 무역수지도 타격을 받아 12년동안 2백90억달러가 악화하고 이결과 오는 2005년의 순외채가 3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DRI는 또 산업별 전망을 통해 탄소세의 도입시 세계자동차 경기의 위축으로 오는 2005년까지 국내 자동차의 수출은 10만7천대, 국내수요는 18만5천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반해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은 선진국기업들의 가격경쟁력약화로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같은 기간중 56만, 철강제품은 32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東亞)

貿易協定규제영향 분석보고서